

작은 꽃

재속 프란치스코 성 디에고 형제회 소식지

주요 날짜:

- 10 월 1 일
선교의 수호자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
대축일
- 10 월 4 일 우리 사부
성 프란치스코
대축일
- 10 월 8 일
지구형제회의 날
- 10 월 9 일 성서모임
- 10 월 23 일 총회

다음쪽:

8 월 월례회

성서모임 소식

이달의 작은 사람



제가 이래도 되겠습니까?

김 재속 베로니카, SF0

몇달전 양성시간에 Mark 수사님 말씀의 일부분을 인용하면 “하느님의 말씀은 창조물을 통해서 자신을 들어내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돌보고 존경해야 한다. 창조물을 작취하거나 파괴하면 안 된다. 특히 프란치스코라면 하느님의 창조물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가르침 속에서 내 모습이 떠올라 피식 쓴 웃음이 납니다.

저희 집은 조그마한 가게를 합니다. 가게 동쪽으로 창쪽에 햇빛을 가리기 위해 발을 두개 달아 놓았습니다. 작년에 이름 모를 새가 처음 그곳에 집을 지었습니다. 사부님 말씀 중에 “새형제여”가 생각나서 애정 어린 눈으로 웃으며 우리 가게를 찾아온 새형제들이 짓는집을 바라 보았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깊어 갈수록 동쪽의 햇살이 따가워지며 전산기의 숫자가 햇빛에 반사되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새들의 보금자리 때문에 발을 내리지 못하고 몇달을 그렇게 힘들게 보냈는데 그 새가 떠나면서 여기가 살기 좋다고 했는지 다른새가 오고 또 오고, 발은 새똥으로 완전히 범벅이 되었습니다. 그해 겨울에서야 새가 떠나고 나서 발을 떼어내어 새것으로 바꿨습니다.

이제는 끝났다했는데 봄이 되니 아니나다를까 작년에 여기서 태어난 새끼가 어미가 되었는지 짝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지난 한해 햇빛으로 힘들어서 올해는 안되겠다 싶어 새들에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올해는 안된다. 다른데 안식처를 구하여라. 올해는 여기 말고 저쪽 집 기와 밑도 있고, 저쪽 나무가지도 있다”며 여기저기 손가락으로 경치 좋고 전망 좋은 곳을 가르쳐 주며 이사할 것을 권했습니다. 사부님을 닮아보려고 형제 대접을 깎듯이 했습니다. 아무리 그

래도 새들은 끈질기게 찾아왔고, 잠깐 안보면 지푸라기를 한 뭉치 물어 놓고해서 빗자루로 쓸어내고 또 쓸어내고 필사적으로 안된다 했지요.

그야말로 새들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제 꼴이 한심하지요? 긴막대 빗자루를 들고 전기줄에 앉아있는 새들에게 “야 이 ‘새’ 새끼야, 옛날 어른들이 말귀 못 알아듣는 아이에게 ‘아이구, 이 새대가리야’하든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제야 이해가 간다. 우찌 이리도 말귀를 못 알아듣노!” 하루이틀도 아니고 한달이 가깝게 들어가는 손님, 나가는 손님들이 하늘을 보고 한국말로 탄식하는 내 모습을 이해가 안간다는 눈으로 힐끔 힐끔 쳐다봅니다. 그야말로 나의 모습은 그 사람들이 볼때 살짝 정신이 나간 모습이지요.

우리 주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사부님 영성을 닮아야 하는 것을 머리로 잘 알지만 생활 속에서 실천하지 못하는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닌 자신을 볼때 마음에 갈등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사부님, 그리고 형제님들, 제가 이래도 프란치스코가 맞습니까? 언제쯤 철이 들어서 온 가게가 새집으로 범벅이 되어도, 오, 새형제여하며 하늘을 바라 볼 수가 있겠습니까?

눈을 감고 사부님께서 남겨주신 태양의 찬가를 음미하면서 가만히 불러봅니다.

“형님인 태양과 누님인 달은,
오 아름다워라, 어머니신 땅과
과일과 꽃들, 바람과 불,
갖가지 생명 적시는 물결...”



성 디에고 형제회

월례회:
매달 4 번째 주일
오후 2 시 30 분
St. Columba 성당
3327 Glencolum Dr
San Diego, CA 92111

전화:
(858) 274-0229

E-MAIL:
mchusfo@yahoo.com

‘작은꽃’에 관한 문의:

전화:
(858) 618-1164

E-MAIL:
kwon_youngwhan
@yahoo.com

성서모임 - 시편

신약성서 공부를 마치고 바로 시작된 첫 구약성서 모임이 미사, 성가, 연도들을 통해 낮익고 귀에 친숙한 시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시편의 대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께 드리는 숭배와 찬미로 가득 차있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심을 기뻐하는 찬양의 노래와 하느님의 백성이 겪고 있는 심연의 고통을 통곡하며 적의 악행을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탄원의 노래도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밑바탕에는 전적으로 자기의 하느님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확고한 믿음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흥미있는 점으로는 만족과 감사를 표현하는 시편이 있는 반면, 자기



다시 읽는 첫 걸음

가 겪고 있는 재앙에 대하여 하느님께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는 시편도 있어,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인간의 삶은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편은 우리가 불러야 할 기도서요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주는 노래요 찬양시입니다.



마음을 모아

8월 월례회

Mark 수사님께서 준비해오신 ‘矛盾’이란 주제로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마태 16:26)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에 관한 공의헌장 26 항에 대하여 생각해보며, 프란치스코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달의 작은 사람은 이 은영 ‘마리아 프란치스카 사베리아’ 자매님입니다. 감리교계 중, 고등학교를 다니신 자매님은 천주교 집안으로 시집오셨습니다. 남편 이 재찬 프란치스카 사베리오(자매님의 영세명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형제님과 78년 관면 혼배 후 6개월 간 교리 공부를 받으셨다 하십니다. 1남 2녀의 자녀를 두신 자매님은 91년 미국으로 이민하여 샌디에고로 오셨습니다. 주변 프란치스코인들의 끈질긴 물귀신 작전(?)에 넘어가 형제회와 인연을 맺게 되어, 2001년 남편 프란치스코 형제님과 함께 입회하셨습니다. 스스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느꼈지만, 프란치스코 성인의 단순한 삶에 마음이 끌려 그냥 믿기로 하고 2004년 프란치스코의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진정 자신을 열고 마음을 나눌수 있는 형제가 될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으로 시작한 형제회 생활을 통해, 이제는 모두를 진정한 형제라고 느끼신다는 자매님께서서는 형제들 하나 하나가 너무 좋다고 하십니다.

이달의 작은 사람



돌맹이는 담담히 막히어서, 녹음은 풀빛의 어슴프레한 단일색으로, 생명있는 것들은 또 그 피의 울멍임으로 인해 우리의 각성을 끝까지 일으키는데 있어 미흡하지만, 없으면서도 결코 없지 않는, 허공이 허공 아님을 증명하여 무가 무가 아님을 바닥까지 각성시켜 창조의 신비를 일깨우는데 있어 꽃 이상 가는 것은 없다고 느낀다. 어느날 갑자기 개화되어 눈앞에 총생하는 이름모를 야생화, 갈라진 콘크리트 틈새에 비집고 뿌리내린 민들레, 그리고 바람에 흩날리던 홀씨. 봄 진달래, 살구꽃, 개나리, 모란, 작약, 다알리아, 맨드라미, 옆집누나 손톱을 물들여 이쁘게 만들어 놓던 봉선화, 채송화 그리고 국화, 이것은 또 설화속 단군 할아버지의 어머니가 사람노릇하고 싶어 식품으로 삼았다는 썩과 마늘, 그 썩의 냄새를 한 계통으로 갖고 있어 우리에게 늘 영원애의 향수를 느끼게 하는 시골다움이 배어있어 좋다. 과연 누가 있어 이 거둬거둬의 활현으로 숨가쁜 삶의 여정에서 영생을 각성시켜 한 때나마 숙연케 하는 것일까? 프리웨이 진입로 한 모퉁이 어제 없던 이름모를 야생화를 문득 정차중 발견하곤 창조주 주님의 신비를 각성해 가는 하루다.

편집부